



중요무형문화재 108호 송헌 전기만 목조각장이 불상 조각 시연을 하고 있다.

목조각은 목재를 깎고 다듬어 유용하게 쓰려는 데서 비롯된 오랜 전통을 가진 기술로써,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한국의 목조각은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된 이후 사원건축과 불상조각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불교유물에 뛰어난 목조각 작품이 많다. 그러한 까닭에 목조각장은 대체로 불교 목조각의 전통적인 기술을 전수받아 이 일에 종사해온 장인 또는 그 기능을 가리키기도 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기능보유자인 전기만 목조각장은 세수 82세의 노거장이다. 192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이후 1958년 이래 목조각의 기능을 한층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월남단원으로 월남한 전 목조각장은 이후 대구와 대전을 근거지로 목조각 활동을 이어왔다. 전 목조각장은 중요무형문화재 불화장 기능보유자인 석정 스님의 지도에 따라 조선시대 목불을 연구해 보라는 가르침에 1970년대에 들어서 불교조각에 본격 입문했다. 이후 전 목조각장은 수

백여 구가 넘는 각종 형식의 불교조각을 완성했다. 특히 불상의 양식에 있어 통일신라의 고전양식과 조선시대의 불상이 가진 독특한 고전양식의 한 전형을 시도하고 이를 표현하는데 열심하고 무리 없는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목조각장은 1984년 해인사 암자 불사에 참여한 이래 해인사 등 전국사찰에서 목조각 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제2회 송헌 전기만 문도불교조각전에는 이런 전기만 목조각장의 작품을 비롯해 인천 무형문화재 이방호 목조각장, 오금백 전수조교, 남기설, 장영춘, 문용대 이수자 등 문도 16명의 작품이 선보였다. 특히 전기만 목조각장은 20일 직접 대중들 앞에서 목조각 제작을 시연했다.

“50여년째 불상을 조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스스로 만족할 만한 작품을 조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불상을 조성하지만 완성해

놓고 나면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수양이 덜 된 것 때문이겠지요.”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수양 부족으로 겸손을 표하는 모습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이날 선보인 전기만 목조각장의 아미타여래좌상은 은행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은행나무를 껍질째 보관해 서서히 건조시켜 뒤틀림을 미연에 방지한다. 여기에 옷칠을 입혀 갈라짐을 방지한다. 단정한 자세이면서 균형잡힌 얼굴 표정, 당당한 어깨, 안정감 있는 무릎 등 전체적으로 균형미가 뛰어난 조선시대 불상과 닮아 있다.

전 목조각장은 “목조각과 불법의 인연을 따라 같은 길을 가게 된 제자들과 전시회를 꾸리게 돼 큰 영광”이라며 “불자들의 예경의 대상인 불상을 대중전시로 드러내 조심스럽지만 우리네 조형전통 전승을 성실히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성 다한 끝질에 나무가 부처로

송헌 전기만 목조각장 문도 불교목조각장 전승전 열어



송헌 전기만 작 아미타여래불상

수목화의 현대적 변용 '눈길'

'당대 수목전' 11월 29일까지 학교재 갤러리서

검은 먹과 하얀 화선지는 수목화를 그리는데 필수요소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런 회화의 전통을 과감히 벗어난 새로운 시도가 선보여 눈길을 끈다. 11월 29일까지 서울 학교재갤러리에서 열리는 '당대 수목 전'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독창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통수묵으로 입문했지만 기존의 재료와 방법, 주제에서 탈피해 실험적이고 개성적인 작품으로 수목화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중 조환(57) 작가는 중국 당나라의 서예가 장욱(張旭)이 쓴 반야심경을 철판 위에 그려냈다. 학교재 갤러리 전시장 한쪽 벽면을 꽉 채운 조환 작가의 작품의 앞에는 반야용선을 상징하는 녹슨 나뭇배가 자리하고 있었다.

'무제'로 이름 붙인 이 작품은 불교의 가르침이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음을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조환 작가는 철판에 글씨를 쓴 뒤 이를 바탕 삼아 레이저로 글씨를 오려냈다. 문자만 있는 방편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형상화 한 것이다. 조환 작가는 “붓 대신 용



조환 작 '무제'



김선두 작 '붉은 땅'



김호득 작 '검-사이'



웨이칭치 작 '파라마운트산을 점령하라'



장위 작 '지문행위'

한중 수묵의 새로운 담론 모색

현대재료 활용 팝아트로 표현

장위 등 중국 화가 2인도 참여

접기를 잡은 것일 뿐'이라며 '먹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 한다. 고정불변인 것은 없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일필휘지로 다양한 연작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김호득(65) 작가는 광묵천에 일획의 선을 그은 현대적 수묵화 '검-사이'를 선보였다.

김호득 작가는 "현대 수묵은 절망에 빠져 있다. 그래서 오히려 먹으로 현대적 감각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두(57) 작가는 '별을 보여드립니다-붉은 땅'과 '싱그러운 폭죽'에서 봄꽃을 필묵으로 그린 후 오려내고 남은 바탕 종이를 넓은 장지에 붙였다.

이를 통해 원래의 화사한 바탕색이 필선처럼 보이는 효과를 냈다. 김 작가는 "동양화와 서양화 모두 최근에는 전통을 현대적 요소를 통해 소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제지간인 중국화가 장위(56)와 웨이칭치(45)는 무거움과 가벼움의 상반된 작품을 보였다. 먼저 스승인 장위는 수묵의 주요 도구인 운필을 버리고 손을 사용했다. 도장을 찍는 지문행위를 반복한 작품 '지인'은 수목화의 본 고장인 중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담고 있었다.

제자인 웨이칭치의 그림 '파라마운트

산을 점령하라 2'는 할리우드 영화사인 파라마운트사의 로고를 패러디해 먹으로 그린 산 위에 중국을 상징하는 오성기의 별무리를 수놓았다.

학교재 측은 "아시아 동시대 수묵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가려고 기획했다"며 "동명의 제목으로 1년 6개월 간격으로 지속해서 개최해 수목화의 결을 두껍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02)720-1524 노덕현 기자

박연정 무용단, 비움의 미학 '똥' 공연

11월 29일 초연...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지원사업



박연정 무용단의 '똥' 공연 모습

아한다는 단순한 이치를 망각하고 욕망만을 품은 채 순환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의미한다.

연극 속에는 설치미술과 영상, 한국무용, 비보잉 등 다양한 장르를 한 무대에 풀어낸다. 공연은 29일 오후 4시, 7시 두차례 열린다. 한편, 이번 부산문화재단의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사업은 총 6000만원이 지원되며 선정심사가 쇼케이스로 진행돼 화제가 됐다. 쇼케이스에 참가한 연출가는 박정윤('TANZ in Busan'·무용), 박연준('영이 들어온 길'·연극), 이재은('빌려간 도시'·무용), 박연정('똥'·무용·사진), 김효영('Hiker'·연극) 등이었다. (051)745-7252 노덕현 기자

청년연출가 박연정 무용단의 '똥'이 11월 29일 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부산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우수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똥'은 채워지면 비워

한국 사경 작품의 끝을 본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10회 한국사경연구회원전

외길 김경호 씨를 비롯한 40여 작가가 이 참여하는 제10회 한국사경연구회원전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술세계 갤러리 5층에서 열린다.

'삼매' 속에서 영근 법사리, 사경(寫經)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초대전에서는 삼무의 핵심요소인 '삼매' 속에서 쓰여진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현대사경 창작품들과 함께 권자본, 절첩본 선장본과 같은 전통양식과 묵서, 금니, 은니 경면주사 등의 전통재료로 서사한 작품들이 고루 선보인다.

외길 김경호 명예회장은 '사경삼매'에 대해 "모든 분별이 녹아 버린 상태"라며 "그렇기에 사경삼매에 들게 되면 모든 업

장조차도 존재하지 않음을 체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명예회장은 "삼매의 공능은 속세의 업장마저도 얼음이 녹듯 녹여버리는 것으로 그 속에는 고탐한 행복만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미술세계 배용현 대표이사는 한국사경연구회원전에 대해 "사경은 과거의 유물을 재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현존하는 전통을 수행자가 실현시키기까지의 과정은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02)2278-8388

노덕현 기자

since 1973
2016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저렴한 가격!!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121068-56-042256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2016년 8월 달력

12월:상호인쇄

12월 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정가 1800원
규격: 30cm x 63cm

12월 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정가 1800원
규격: 26cm x 19cm

12월 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정가 1800원
규격: 26cm x 19cm

12월 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정가 1800원
규격: 26cm x 19cm

12월 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정가 1800원
규격: 26cm x 19cm

12월 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정가 1800원
규격: 26cm x 19cm

12월 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정가 1800원
규격: 26cm x 19cm

12월 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정가 1800원
규격: 26cm x 19cm